

무용경연 프로그램을 통한 남성 무용수의 사회적 인식 변화

- 스테이지파이터를 중심으로 -

김재은* · 윤필규**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은 인류 역사 이래 신체를 매개로 감정과 서사를 표현해 온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정제된 예술이지만 사회적 수용 과정에서는 젠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무용은 신체의 유연성, 섬세한 감정 표현, 미적 추구라는 특성이 ‘여성성’으로 연관되어 인식되어 왔으며 (Haltom & Worthen, 2014) 이것은 남성 무용수들의 예술가로 위상과 정체성의 측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었다 (Risner, 2014). 특히 발레의 경우 과거에는 남성 무용수들이 여성 무용수인 발레리나를 보조하고 리프트나 턴과 같은 기술적 힘을 제공하는 ‘파 드 두(Pas de Deux)’의 파트너 혹은 배경적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남성 무용수’ 개인이 아닌 ‘여성 무용수의 조력자’라는 역할에 종속되게 하였다 (Kondo, 1997). 이러한 인식은 남성 무용수들이 예술가로 활동하는데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되었고 김재은, 박인실(2013)의 연구에도 남성 무용수들은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과 사회가 기대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는 주변화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대중들은 남성 무용수들의 예술적 행위가 경쟁, 지배, 그리고 감정적 비노출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으로부터 이탈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와 미디어 환경은 케이-팝(K-Pop)이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으며 고도로 훈련된 남성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는 ‘칼 군무’와 동시에 섬세하고 유동적인 감수성을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남성적 ‘신체미’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김수아, 2012).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2024년 엠-넷(M-net) 방송은 전문 무용수 경연 프로그램인 “스테이지 파이터”

* 주저자, 경운대학교 조교수

** 교신저자, 경운대학교 부교수, pkyoon@ikw.ac.kr

를 기획하고 방송하였다. 스테이지 파이터는 감동과 공감이 있는 K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무용수를 소개하며 대중성과 팬성을 형성하여 K클래식 무용수의 무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기획 의도였고 방송 3회만에 비드라마 부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뉴시스, 2024). 스테이지 파이터는 대중이 남성 무용수들의 춤을 예술 가치로 깨닫게 하며 ‘아름다움’ 자체로 순수하게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남성 무용수들의 예술가로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미디어를 통해 남성 무용수들이 사회적 인식의 편견을 어떻게 깨고 대중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학문적 공백을 보인다.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에서 젠더 및 신체와 관련된 연구(김재희, 2012; 배장원, 2012; 임정미, 권세영, 이수원, 2012; 정재숙, 2017)는 주로 무용의 역사적 고찰이나 특정 장르 내에서의 여성성/남성성 재현 분석에 치중해 왔다. 이중 남성 무용수 관련 연구는 직업적 정체성 갈등이나 남성성의 주변화에 대한 탐구에 집중되었으나 주로 미디어 노출 이전 상황을 포착하는 데 머물렀다. 즉,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변화와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미디어에 비취진 춤추는 남성성에 대한 연구(김수아, 2012; 김정윤, 2019; 임양준, 2016)는 주로 케이-팝 아이돌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남성성’이나 ‘유동적 젠더 표현’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 연구들은 미디어가 춤추는 남성성에 대한 젠더 규범을 유연화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했으나, 연구의 대상이 ‘아이돌 스타’라는 대중 엔터테이너에 한정되어 있어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순수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가’가 대중매체를 통해 젠더 규범을 해체하는 것의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팬덤이나 관객 지원과 관련된 연구(박영택, 2020; 임양준, 2016)는 대중예술에서 팬들의 예술에 대한 능동적인 해석과 문화적 권력에 주목하며 팬덤이 스타에게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들은 주로 팬덤의 소비 행태와 스타와 팬의 정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을 순수 예술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남성 무용수의 사회적 인식에 미디어가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성 무용수가 예술가로 경험한 사회적 인식과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이후 예술가의 존재로 인식되기까지의 연결고리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탐색한다.

- 첫째, 남성 무용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둘째,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 전 경험한 남성 무용수에 대한 인식과 출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셋째,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으로 인해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였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남성 무용수들의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구성되는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Stake(1995)의 구성주의적 사례연구 방법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사례는 고유한 맥락(context) 속

에 존재하는 “경계가 있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bounded, integrated system)”로 간주되며, 연구 참여자의 관점 안에서 사례가 지닌 복합성과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전문 무용수로 활동중이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한 남성 무용수 9명을 전공에 관계없이 선정하였다. 전문 무용수 출신인 본 연구자의 후배 중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 무용수를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해 함께 출연한 무용수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즉 Goetz와 Le Compte(1984)가 명명한 준거적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것은 민감한 속내를 고백하는 것일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비교적 솔직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보조 참여자 3명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출연자들의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는 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 연구자가 이메일(e-mail)이나 댓글로 연락하여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이들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주참여자 개인별 특성

분류	이름	전공	나이	학력	무용경력	현재 직업
1	박정훈	발레	25세	대졸	14년	직업 무용단 단원
2	여명환	현대무용	26세	대졸	16년	객원 무용수, 무용 지도자
3	김성훈	현대무용	30세	대졸	16년	안무가, 객원 무용수, 무용 지도자
4	박경수	한국무용	32세	대학원졸(석사)	22년	안무가 객원 무용수, 무용 지도자
5	최영준	한국무용	34세	대졸	21년	직업 무용단 단원
6	민성호	발레	34세	대학원 재학(석사)	19년	직업 무용단 단원
7	안운영	발레	36세	대졸	25년	안무가, 무용 지도자
8	김민호	현대무용	36세	대학원졸(석사)	20년	안무가, 직업 무용단 단원
9	장호연	한국무용	37세	대학원졸(석사)	21년	안무가, 객원 무용수, 무용 지도자

〈표 2〉 연구 보조참여자 개인별 특성

분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	무용 관련 경험	팬덤 활동 경험
1	김민주	여	39세	교사	서울	취미발레 수강 중 (4년)	인스타그램 영상게재, 출연 무용수 공연 지속 관람
2	이지영	여	41세	회사원	서울	취미발레 수강 중 (3년)	유튜브 영상 게재
3	박성연	여	42세	개인사업	경기	취미발레 수강 중 (5년)	인스타그램 영상게재, 출연 무용수 공연 지속 관람

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한 남성 무용수들이 미디어를 통한 예술가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그 의미를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이용하였는데 남성 무용수들의 경험은 개인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견되고 다양하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조화된 면담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 중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을 추가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의 댓글을 보조 자료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5년 2월~6월 중 총 4회의 공식적인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남성 무용수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통해 예술가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방송은 남성 무용수들이 예술가로 경험했던 젠더 편견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대한의 자료를 얻기 위해 전화와 메일을 통한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보조 참여자들도 연구자가 보조 참여자들의 일정에 맞춰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에서 느낀 의미를 질문하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담긴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질적연구의 특성상 방대한 원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자료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러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귀납적 범주분석(inductive categorical system)과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Struass & Corbin, 1990). 자료의 진실을 제고하기 위해 분석하고 해석한 자료의 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연구 보조참여자들에게 검토 의뢰하였고 이러한 과정 중 연구자의 연구 참여자와 연구 보조참여자에게 질문을 하며 해석에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수행 경험이 많고 남성 무용수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무용학 박사 2명, 전문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은퇴 후 현재 민간 직업무용단으로 재직중인 단장 1명에게 연구자가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에 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이끌어냈다.

III. 결과

1. 미디어 통한 ‘주변화’ 인식의 해체

스테이지 파이터와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연출 전략은 남성 무용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체하고 전문 예술가라는 본질의 이미지를 조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미디어의 프레임링 효과가 사회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www.kci.go.kr

가. '예술의 전문 주체'로 정체성 강조

미디어는 무용수들의 고난도 기술적 전문성 및 신체적 숙련도를 드라마틱하게 강조하며 '춤추는 남자'가 아닌 고도의 훈련을 거친 '전문 예술가'로 조명하며 남성 무용수들의 직업에 대한 젠더적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예술적 성취에만 집중하도록 대중의 시선을 유도했다.

출연을 결정했을 때, 제일 걱정한 건 '재네 왜 남자끼리 나와서 춤춰?'라는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방송은 저희의 훈련 과정이랑 한 동작을 위해 밤샘 연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저희의 땀과 노력, 그리고 무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남자나 여자나를 따지지 않는다는걸 알았어요(연구 참여자 장호연/ 한국무용, 1회차 공식면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고향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이제는 제가 하는 직업의 난이도를 인정해 줍니다. 턴을 10번 하는 것의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공중에서 멈춰 보이는 듯한 그 순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된 거죠. 방송이 예술의 기술적 측면을 조명해준 덕분에 '댄서'를 넘어 '최고의 기능을 가진 예술가'로 공인되었다고 느꼈어요(연구 참여자 안운영/ 발레, 1회차 공식면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은 미디어가 '노동의 가시성'(visibility of labor)을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 젠더 편견을 해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남성 무용에 대한 부정적 젠더 낙인인 '여성적'이라는 오명은 미디어에 비춰진 '고강도 훈련을 통한 전문성'을 통해 기존의 시선을 깨트렸다. 이는 무용이 '예술'의 영역이면서 강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숙련된 노동'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과이다. 기술적 난이도와 숙련된 수행력(competence)은 대중에게 무용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며, 이는 남성 무용수가 수행하는 직업의 행위를 전문성(professionalism)의 영역으로 확립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Risner(2014)가 논한 것처럼 신체 예술의 직업적 정당성은 기술적 우위를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는데 미디어는 이러한 예술가에게 중요한 기술적 성취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며 남성 무용수를 예술적 기술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나. 연출을 통한 "신체의 미" 격상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카메라 연출을 활용해 남성 무용수의 신체를 미학적 오브제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슬로우 모션과 섬세한 클로즈업은 근육의 움직임, 긴장과 이완이 만들어내는 선의 유려함 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며 '아름다움'의 본질적 가치를 조명했다. 이러한 시각적 재현의 연출은 과거 남성 무용수들에 대해 '여성적'이라는 평가를 '미학적 완벽성'이라는 초월적 가치로 치환하였다는 것을 아래 연구 참여자 민성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방송은 제 몸의 근육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줬어요. 긴장과 이완이 만들어내는 곡선을 강조했죠. 이걸 보고 제 신체가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을 떠나, 움직이는 조각상처럼 느껴졌다는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방송 덕분에 제 춤이 순간적인 퍼포먼스를 넘어 예술 작품처럼 인식되는 경험을 했습니다(연구 참여자 민성호/ 발레, 2회차 공식면담).

www.kci.go.kr

무용수들 춤 선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돌려봐요. 특히 땀을 흘리면서 힘줄이 서는데, 그게 괴로운 모습이 아니라 ‘강렬한 예술’로 느껴졌죠. 예전에는 남자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춤은 정말 ‘아름답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화면에서 그들의 단단한 몸이 부드러운 선을 그리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체가 완벽한 예술을 보는 느낌이에요. 성별은 완전히 있고요(연구 보조참여자 박성연/ 1회차 공식면담).

연구의 보조 참여자 박성연의 반응은 미디어의 연출 전략이 남성 신체에 대한 젠더 인식을 중화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신체적 노동과 고통 감수의 결과로 여겨지던 ‘땀’과 ‘힘줄’이 ‘아름다움’과 ‘예술’이라는 미적 범주로 전이되는 현상은 남성 무용수의 신체미의 본질을 대중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미디어의 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 연출은 남성 신체에 내재된 강인함(근육)과 유연함(춤 선)의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였다. 이로 인해 대중은 젠더 편견을 해체하고 신체와 신체 움직임의 미적 완성 자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클로즈업을 통해 신체와 신체 움직임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것은 신체를 순수하게 미학적인 구조물로 인식하는 “탈젠더화(De-genderization)”를 촉진한다(Goffman, 1979).

다. 서사를 통한 ‘공감적 주체’로 매력 부각

미디어는 경연 과정에서 남성 무용수들 간의 경쟁과 협력,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는 서사를 구축하여 이들의 깊이 있고 입체적인 인간적 매력을 방송하였다. 이는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화려하지만 거리감 있는 존재가 아닌, 대중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감정이입 할 수 있는 친근한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춤 추다 실수하고, 팀원들과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풀기 위해 밤새 대화하는 모습이 모두 방송에 나갔더라구요. 인간으로서 고뇌가 많이 보여진 것 같아요. 방송 후에 댓글의 반응이 ‘춤도 감동적이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진정성이 더 감동적이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대중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박정훈/발레, 2회차 공식면담).

경연으로 솔리스트 배역을 탄 사람은 무용을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들에게 실력은 뛰어나지만 좀 독단적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보여질 수 있죠. 하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공연 전에 긴장해서 동료들과 장난치는 모습, 경연 직전 긴장을 풀기 위해 동료들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모습 등 이런 무대 뒤의 일상이 시청자분들께 흥미로우셨나봐요. 인간적이고 친근한 그런 다양한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무대 위에서 솔리스트로의 카리스마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늘어났어요(연구 참여자 박경수/ 한국무용, 3회차 공식면담).

미디어가 구축한 서사 전략은 남성 무용수를 단순한 ‘퍼포머’에서 대중과 정서적으로 연결된 ‘공감적 주체’로 전환이었다. 연구 참여자 박정훈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실수, 갈등, 인간으로 고뇌를 드러내는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금기시하는 취약성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며 대중의 정서적 공감을 극대화

했다. 이렇듯 대중들에게 남성으로의 나약함과 취약성을 공개하는 것은 무용수들에게 진정성이라는 추가적인 가치까지 부여되어 팬덤 확산의 기반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박경수의 진술처럼 ‘무대 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은 Risner(2014)가 이야기한 ‘진정성 기반의 친근함’이 무대 위 예술적 권위를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대중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과 일치한다.

2.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해체

남성 무용수들은 과거 ‘여성적’일 것이라는 젠더 편견과 무용에서 여성의 주변 인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힘, 유연성, 감수성이 조화된 다층적 신체 수행성을 획득하며 그동안 당연하게 대중들이 인식해온 젠더 규범을 해체하고 있었다.

가. 강인함과 유연성의 공존

연구 참여자들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남성 무용수의 신체가 단순히 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강인함과 유려한 감정 표현이 동시에 공존하고 발현되는 아름다움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남성 무용수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회적 인지를 젠더 규범적 역할(보조자)을 넘어 예술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무용에서 남성 특유의 ‘강함’을 움직임의 ‘정밀한 통제’로 해석하며 표현하였고 대중들은 이를 통해 남성 무용수들의 섬세한 감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어릴 때 발레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는 힘만 쓰는 거 아니냐’, ‘공주님 들어주는 역할 아니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 무대에서 턴을 할 때나 여성 무용수를 리프트 할 때 필요한 그 폭발적인 근육의 힘, 그리고 그 힘을 순식간에 ‘깃털처럼 가벼운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유연성, 이것이야말로 남성 발레만의 미학이죠. 시청자들이 단순히 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강인함 속에 숨겨진 유려한 선과 부드러운 호흡을 표현하려했고 시청자들이 그걸 읽어주셨을 때 가장 큰 예술적 해방감을 느껴요(연구 참여자 박정훈/ 발레, 2회차 공식면담).

한국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인데, 이 호흡이 몸 전체를 관통할 때 나오는 ‘깊은 울림’이 있어요. 이 울림은 강렬한 남성적인 힘과 동시에 춤에서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만들죠. 시청자들은 저희가 한복의 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면서도 중심을 잡는 그 단단함에 찬사를 보내셨어요.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속은 강한 신체가 바로 대중이 새롭게 정의하는 예술적 남성성이라고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최영준/ 한국무용, 3회차 공식면담).

연구 참여자 박정훈의 진술은 남성 무용수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강요하는 이분법적 신체 규범(‘힘’ 또는 ‘부드러움’)을 거부하고, 그 둘을 동시에 포괄하는 ‘초월적 신체’(Transcendent Body)로 기능하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힘을 ‘가벼움으로의 전환’한다는 미학적 승화는 남성 무용수들이 강함과 섬세함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통합하여 젠더 인식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능동적인 전략(Kondo, 1997)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 최영준의 경험처럼 ‘숨겨진 강인함’과 ‘드러난 유연함’의 상반된 미학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는 남성 무용수를 바라보는 미적 가치 평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였다.

나. '협력적 신체 수행'을 통한 공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파트너링이나 군무에서 남성 무용수가 보여주는 '협력적 신체 수행'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쟁과 지배를 중시하는 남성성 모델 대신 섬세한 배려, 조율, 공감이라는 새로운 남성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었다. 이는 남성 무용수의 역할을 작품을 수행하며 '관계를 완성하는 주체'로 격상하였다. 다시말해 남성 무용수들이 보여준 무용에서 '협력적 신체 수행'은 파트너의 움직임에 예측하고, 지지하며, 동등하게 조율하는것이 무용의 예술적 가치중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

군무를 할 때 수십 명의 몸이 동시에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기만의 박자를 타면 안되죠.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지도록 서로의 속도와 호흡을 끊임없이 맞추고, 특히 제가 솔리스트이면서 군무 안에서 어우러져야 할 때, 저는 오히려 주변을 섬세하게 포용하는 움직임을 해야해요. 예전에는 '나 혼자 돋보여야 한다'는 경쟁심이 강했지만 이제는 '전체가 완벽하게 조화될 때' 관객이 감동한다는 걸 알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의 협력적 리더십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연구 참여자 김성훈/ 현대무용, 2회차 공식면담).

스테이지 파이터를 보면서 남성 무용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파트너가 불안할 때 남성 무용수가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 쓰러지지 않게 몸 전체로 지지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단순히 힘이 세서 드는 게 아니라, 배려와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제가 일상에서 보던 강압적인 남성성하고는 달랐죠. 몸으로 표현하는 따뜻함이랄까요. 그게 훨씬 감동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연구 보조참여자/ 이지영, 3회차 공식면담).

연구 참여자 김성훈의 인터뷰 내용은 군무에서 솔리스트가 돋보여야 하는 존재가 아닌, 무용수들을 '포용하는 조율자'로 재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무용에서 타인과 조화를 통해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남성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보조 참여자 이지영의 반응에서 나타나듯 대중은 남성 무용수가 신체 수행에서 '힘' 자체보다 다른 무용수들과 어우러지며 솔리스트의 역할을 해낼때 더 큰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무용에서 남성 무용수는 상대 무용수를 섬세하게 '지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행위는 무용 예술의 중요한 기술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남성의 공감 능력으로 전달되어 현대 사회에 필요한 대안적 남성성의 가치를 제시한다.

다. 감정의 '억제'에서 '발산'으로

남성 무용수들은 무대 위에서 내면의 감정을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한 예술적 역량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되었던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해방적 수행으로 해석된다. 시청자들 역시 남성 무용수들의 감정 발산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을 강인함과 감성적 깊이를 모두 가진 '완전한 예술가'로 수용하고 있었다.

작품에서 제가 중요하게 표현하는 감정은 '고독'과 '상실감'이에요. 일상에서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약한 감정이지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이 감정을 온몸으로 내뿜어야 해요. 이번에도 제 솔로 부분에서 나약한 감정을 극대화하며 움직임에 녹여냈어요. 시청자들은 제 춤을 보고 '저렇

게 슬픈 감정을 남자 몸이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피드백 하셨어요. 시청자들이 그렇게 공감했을 때 비로소 제 예술이 사회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느꼈죠(연구 참여자 여명환/ 현대무용, 3회차 공식면담).

남성 무용수가 울부짖는 듯한 몸짓으로 격렬한 슬픔을 표현할 때, 그 감정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전에는 '남자다움'은 무표정하고 무심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대 위의 무용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 감정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해서 성별을 떠나 하나의 예술가로 인식되었죠(연구 보조참여자 김민주, 3회차 공식면담).

연구 참여자 여명환의 진술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남성 무용수들은 움직임에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깊이 녹여 표현함으로써 젠더 경계를 넘어선 존재로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보조 참여자 김민주의 반응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남성의 감정 표현을 '나약함'으로 해석하던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남성 무용수들의 감정 표현을 '미학적 완벽성'으로 느끼게 된 것을 보여준다. 미디어는 남성 무용수들의 '감정 발산'을 '예술적 몰입'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보여주며 시청자들로부터 남성의 감수성 수용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 남성의 '감정적 취약성'을 무용을 통해 대중들에게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강요하는 감정의 억압을 무용수 스스로 파괴하고 해방시키는 기제가 됨을 확인하였다.

3. 팬덤 현상을 통한 사회적 인정과 위상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팬덤은 SNS와 유튜브에서 남성 무용수들의 예술을 지지하고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며 남성 무용수들의 예술가로 위상을 상승시켰다. 팬덤은 남성 무용수의 신체를 '아름다움'과 '젠더 유동성'의 상징으로 재해석하였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문화적 중개자(cultural mediator)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 팬덤으로 확산된 '춤추는 남성의 아름다움'

팬들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무용수의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춤추는 남성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미적 기준으로 대중들에게 공유하였다. 팬덤은 무용의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 젠더 경계를 해체하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생산하여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 연구 보조참여자인 김민주의 인터뷰 내용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 무용수가 땀 흘리며 춤추는 장면을 모아서 제가 편집한 영상을 제일 좋아해요. 그 영상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춤추는 신(神)의 몸' 같은 찬사를 달고 게시하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했어요. 저는 이 활동이 단순히 '덕질'이 아니라, '남성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사회에 퍼뜨리는 문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연구 보조참여자 김민주, 4회차 공식면담).

유연한 동작이나 섬세한 표정을 많이 사용하면 팬들이 그걸 가지고 '오늘의 아름다운 모먼트'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해요. 이전 세대는 남자가 그러면 여성스럽다, 나약하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가장 매력적인 순간’이라며 지지해주세요. 특히 저희의 중성적이거나 유동적인 젠더 표현에 대해 ‘젠더 해방’이라고 표현하는 팬들의 댓글을 볼 때마다, 저희의 방송 출연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실감해요(연구 참여자 민성호/발레, 4회차 공식면담).

연구 참여자 민성호는 팬덤 활동이 남성 무용수들의 미적 가치를 대중들에게 새롭게 규정하고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팬들은 남성 무용수의 신체를 기존의 ‘힘’ 중심의 시선에서 ‘아름다움’ 중심으로 전환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며 남성 무용수들의 예술가로 표현에 대한 열린 시각을 대중들이 갖게 하는 활로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남성 무용수들의 표현을 ‘예술의 시대적 가치’와 같은 표현으로 지지하여 촉추는 남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자리잡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 ‘아이돌화’와 ‘커머셜리티’를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인지도는 남성 무용수들을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광고 모델, 아이돌 스타와 같은 ‘커머셜 아이콘’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무용이라는 순수 예술 영역에 대중적 매력과 경제적 가치를 결합시키며 무용수들이 자신의 직업적 위상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남성 무용수들은 해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야 겨우 매스컴에 나오고 인정받았지만, 저희는 방송에 나오고 팬덤이 생기면서 SNS 팔로워 숫자만으로도 스폰서나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끝나고 저희 순회공연도 표가 모두 매진되는걸 보며 저도 놀랐어요. 무용 실력 외에 대중적 영향력이 생긴거라고 할까? 저희 공연에 와주시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굿즈를 사고 저희가 추천하는 무용복을 사 입으면서 저희를 트렌드 리더로 만들어줬어요(연구 참여자 김민호/현대무용, 3회차 공식면담).

저희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용수를 지원하는 후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공연이 있을 때 과일 도시락을 보내거나, 신청자를 모아 1일 특강을 열기도 하고, 기념 티셔츠 같은 굿즈를 제작해 판매도해요. 저희 팬클럽에 무용 의상 제작하는 대표님이 있거든요. 이런건 무용수들이 경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무용수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 도움이 되죠. 저희는 무용수들이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연구 보조참여자 박성연/2회차 공식면담).

공인에게 팬덤은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팬덤의 주체가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Bourdieu, 1986). 남성 무용수들도 팬덤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무용계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권위의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느낀다. Coleman(1988)도 ‘대중적 인지도’는 기존의 예술적 권위(콩쿠르 수상 등)를 보완하거나 때로는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김민호와 박성연의 진술처럼 팬덤은 무용수에게 ‘경제적 안전망’(economic safety net)을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조직적인 지원 활동으로 무용계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보완하여 무용수가 불안정한 예술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브

랜딩(self-branding)의 성공은 남성 무용수가 젠더적 주변화에서 벗어나 강력한 위상과 영향력을 가진 트렌드 리더로 자리매김하며 무용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다. 대중의 열린 시선과 확장된 젠더 유연성

남성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여성적인 의상 착용이나 섬세한 움직임과 같은 젠더 표현은 과거 동성애적 코드나 ‘여성적’이라는 불편한 시선을 받았지만 오늘날 남성 무용수들의 팬덤은 이를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해석하며 포용하였다. 무용수들 역시 이러한 대중의 포용적 시선을 통해 예술가로 활동에서 젠더 수행의 폭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창작적 동력을 획득했다.

무대에서 파격적인 의상이나 여성적인 움직임을 시도하면 예전에는 ‘재네 혹시 게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 팬들이 생기고 그분들이 ‘남성성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라는 반응을 해주셨어요. 표현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봐주는 거죠. 팬들의 지지 덕분에 표현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없어졌어요(연구 참여자 여명환/ 현대무용, 4회차 공식면담).

제 안무에서 남성 무용수에게 여성 역할을 부여하거나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시도에서 초기에는 저희 그룹인 무용수들이 거부감을 표현했지만 경연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무용수들이 ‘시청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하며 흥미로워했어요. 대중의 시선이 넓어지니 저희도 실험의 범위가 훨씬 커졌어요. 대중이 저희의 도전을 ‘예술 표현’으로 받아준 덕분이예요(연구 참여자 박정수/ 한국무용, 4회차 공식면담).

연구 참여자 여명환의 경험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인한 팬덤이 여성적 표현을 시도하는 남성 무용수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젠더 유연성(gender fluidity)’과 ‘표현의 자유’라고 수용하며 남성 무용수들이 사회적 비난의 염려없이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젠더 유연성은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창의성의 원천도 된다. 특히 연구 참여자 박정수의 진술은 대중들의 포용적 태도가 창작자들에게 예술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시청자들의 ‘열린 해석’은 창작자들이 젠더 규범을 해체하는 실험적 시도를 주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의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열린 시선은 남성 무용수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하며 춤을 통해 사회적 젠더 규범을 깨뜨릴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대중문화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남성성의 변화 경향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무대 연출과 서사 구성 안에서 구체화하여 현시대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감성적 교류와 관계적 소통을 강조하는 현대적 남성성의 선호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남성 무용수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미디어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 무용수들은 대중들에게 젠더화된 직업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문화적 주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의 연출로 대중들은 남성 무용수들에 대한 ‘젠더 편견’을 깨게 되었고 동작 수행의 과정에서 남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인간적인 모습의 조명을 통해 춤 추는 남성에게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탈피하게 하였다. 이화정(2013)의 연구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남성상에 대한 역할과 이미지도 변화하며 남성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상징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분석을 보고하였다. 둘째, 춤 추는 과정에서 남성 무용수들의 동작 수행에서 강함과 약함의 신체조절 능력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표현으로 다가왔으며 감정의 솔직한 발산은 시청자들에게 인간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는 마경희, 김동식, 문희영(2018)이 보고한 과거부터 추구하던 남성성의 변화와 균형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전통적 남성과는 다른 현대가 추구하는 강함과 따듯함이 공존하는 남성 무용수들의 모습을 통해 확립하게 되었다. 셋째, 팬덤은 남성 무용수에게 ‘아이돌 자본’을 제공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젠더 유동성과 파격적인 표현을 ‘젠더 해방’이라는 가치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팬덤의 소비는 남성 무용수들에게 창작의 자율성과 심리적 안전지대를 제공하여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최수진(2018)도 예술가의 직업적 표현의 자율성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며 팬덤은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분석을 보고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출연 경험이 없는 남성 무용수 및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무용수들로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미학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무용계 내의 젠더 권력 구조와 노동 환경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미디어가 촉발한 인식 변화가 실제 무용 생태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무용 예술의 발전동력으로 삼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수 정체성의 다층적 심화 전략 및 예술 교육 개편 남성 무용수들은 미디어를 통해 강인함과 유연성의 공존, 협력적 수행, 감정의 발산이라는 새로운 다층적 남성성을 획득하였다. 무용계는 이 대중적 수용을 예술적 정체성 강화의 기회로 삼아 무용 미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대중이 열광한 강인함(기술)과 유연함(감성)의 통합을 무용계 내부의 새로운 예술 미학적 가치로 확립해야 한다. 무용 교육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이 상반된 가치를 통합하고 젠더 규범을 해체하는 표현에 대한 창작 및 비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용수 스스로가 대중이 열광하는 탈젠더화된 아름다움의 미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인지하고, 다음 창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예술적 자각 역량을 길러야 한다.

둘째, 팬덤과 예술의 심화 연계 및 수용자 리터러시 강화 팬덤은 남성 무용수의 예술적 가치를 젠더 해방이라는 가치로 확산시키는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대중적 지지를 예술 소비의 질적 심화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를 단순한 홍보 채널이 아닌, 팬덤이 무용수의 예술 세계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술 비평과 해석의 공론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작품의 창작 의도(감정의 발산, 협력적 수행의 의미 등)를 직접 해설하는 콘텐츠, 즉 아티스트 토크의 미디어 버전과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예술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팬덤의 문화적 자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팬덤이 무용수를 아이돌처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예술 후원자로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팬들의 활동을 굿즈 구매를 넘어 공연장 관람, 심층 워크숍 참여, 소액 기부 등 예술 향유의 경험으로 질적 전환을 꾀하는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팬덤의 양적 지지를

무용의 예술적 권위를 인정하는 질적 지지로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예술-미디어 협업 통제권의 무용계 귀속 미디어 노출은 성공적이었으나, 예술가로서의 본질이 미디어의 선정적 서사에 종속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예술 감독 중심의 미디어 협업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 무용계 전문가(안무가, 예술 감독)가 예술적 완결성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구조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가 발굴한 서사적 매력(인간적인 모습, 갈등 극복 등)이 무용수의 예술적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돋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연출되도록 무용계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방송 이후 예술적 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디어 출연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방송 성공 이후 출연진의 새로운 예술 작품 제작 및 정기 공연 개최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술적 깊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무용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Stake, R. E. (2001). 질적 사례 연구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창지사. (원저출판 1995).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Greenwood Press.
- Connell, R. W. (1995). *Masculini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etz, J. & Le Compte, M.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Academic Press.
- Goffman, E. (1979). *Gender Advertisements*. Harper & Row.
- Kondo, D. (1997). *About Face: Performing Race in Fashion and Theater*. Routledge.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 김수아(2012). 대중문화 속의 남성성 담론과 젠더 관계의 정치학. *젠더와 문화*, 5(2), 5-32.
- 김재은, 박인실(2013). 남성 직업무용수의 성역할 정체성 갈등과 적응. *한국체육과학회지*, 23(5), 1099-1113.
- 김재희(2012). 남성 무용수의 성정체성과 성지향성 형성과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운(2019). 융복합 시대의 무용 콘텐츠 연구: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무용의 확장 가능성. *한국무용연구*, 37(2), 125-148.
- 박영택(2020). 예술 지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예술가-관객 관계 재정립 연구: 후원(Patronage)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3(1), 1-28.
- 배강원(2012). 남성무용수의 성역할 정체감과 학과적응에 대한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화정(2013). 멜로장르 TV드라마에 나타나는 남성상 유형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160-170.
- 임양준 (2016). 연예인 아이돌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미디어 관여 연구: 국내 중,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아이돌 스타의 이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4(2), 153-180.
- 임정미, 권세영, 임수원(2012). 현대무용 남성프로무용수의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질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51(5), 603-614.
- 정재숙(2017). 한국 현대무용의 젠더 재현 연구: 남성 무용수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47(3), 85-108.
- 최수진(2015). 대중매체 환경 변화와 예술가의 직업적 정당성 획득 연구. *한국예술경영학회*, 28(4), 51-76.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 S95-S120.

- Haltom, T. M., & Worthen, M. G. (2014). Men and the Gendered Profession: When Social Stigma and Occupational Identity Conflict. *Sociology Compass*, 8(11), 1272-1282.
- Risner, V. (2014). Dancing the Gendered Profession: Men and Women in Contemporary Dan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4(1), 16-22.
- 마경희, 김동식, 문희영(2018).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남성들 내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논문투고일 2025. 11. 15.
심사일 2025. 11. 17.
심사완료일 2025. 12. 03.

Social Perception Change of Male Dancers through Dance Competition Programs

– Focusing on *Stage Fighter* –

Kim, Jae Eun* · Yoon, Phil Koo**

Professor, Kyungwoon University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to examine how the South Korean media competition program *Stage Fighter* shaped social perceptions of male dancers. The research explores how media exposure challenged the gendered association of dance with femininity, which had contributed to identity conflict and marginalization among male danc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professional male dancers and three core fandom activists and analyzed using an inductive categorical system and constant comparative methods.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ogram reframed male dancers as highly skilled “professional subjects of art,” reducing gender bias. Production strategies highlighted a “transcendent body” that blended strength and fluidity, offering an alternative, emotionally expressive masculinity beyond hegemonic masculinity. Additionally, fandom activism acted as a cultural mediator, advancing gender-fluid expressions as “gender liberation” and generating “idol capital” that enhanced dancers’ social and economic visibility. The study concludes that media can meaningfully transform perceptions of gendered professions.

Keywords: Male Dancer(남성 무용수), Gender Perception(성 인식), Social Perception Change(사회적 인식), Gender Fluidity(젠더 유동성), Fandom Culture(팬덤 문화)